



행복한 은퇴설계를 위한 제안

외환은행 영업부WMC PB팀장 | 정 연 호

올 여름 휴가철은 여느 때와 달리 잦은 게릴라성 호우로 시원하게 보내는 가 했더니 휴가가 막바지에 이른 8월 하순부터 전국이 35~36도를 웃돌아 폭염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더위가 극성을 부렸었다.

오래 전부터 걱정해오던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들 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에 걱정들을 하고 있다.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전세계가 한 목소리로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우리들의 생애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미래에 닥쳐올 상황들을 라이프 싸이클에 맞추어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자신의 은퇴후의 생활을 예비해 놓지 않으면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못한 조그마한 충격에도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따라서 본인의 결혼, 내 집 마련, 자녀교육, 자녀결혼, 간병비용, 노후생활 등의 생애주기별 필요자금을 미리 예상하여 그에 맞는 저축계획을 세워 실행함은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 예컨대 재해나 중대질병 같은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위험은 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만이 앞으로는 오래 사는 것이 위험인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의 방법에는 다양한 테크닉이 있지만 이는 항상 일정 수준에서 시장상황, 즉, 금리, 주가, 환율, 유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같은 경제변수를 예측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변수 중 어느 하나의 급격한 변동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쳐 마치 도미노현상 같은 일들이 일어나 당초의 계획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번 휴가철의 날씨 변덕만큼이나 글로벌 주식시장은 지난 7~8월에 사상 유례가 없는 큰 변화를 겪었고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이은 엔 쇼크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이자 국내 주식에 투자했던 외국인의 대량 매도까지 겹쳐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그야말로 침몰 직전까지 가는 듯 했다.

광복절 휴일이 끼었던 8월 셋째 주에는 14일과 16일, 17일, 사흘간 코스피지수가 무려 21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7월 말 2004.22로 2000시대 개막에 부풀었던 때와 비교하자면 18%나 하락했으니 투자자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패닉상태에 빠져들 만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자해지라고 미국의 FRB가 긴급 FOMC 회의를 개최하고 재할인율을 6.25%에서 5.75%로 50bp 깎짝 인하한데 이어 '추가 조치'를 언급하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유럽, 아시아 등 시장이 반등하면서 글로벌 신용경색 위기가 통제될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이처럼 글로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자 전세계 주가가 크게 요동치고는 있지만 길게 보면 주식은 장기호황이 예상되고 부동산은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 자산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은 줄어들었고, 퇴직연금 확산과 주택연금까지 가세하면서 노후 준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행복한 경제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은퇴후의 생활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연금 재테크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중심으로 연령대별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서 내 몸에 맞는 연금 재테크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은퇴설계가 가장 필요한 중산층의 경우 관심은 높으나 행동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 은퇴설계, 왜 필요한 것이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통계청의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78.6세(남자 75.1세, 여자 81.9세)인 것과 비교해보면 은퇴 후 무려 25년이나 소득 없이 보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11.4%밖에 안 된다고 같은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회사 사정이나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 퇴직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행히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니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이 통계 자료와는 차이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이런 계산을 해보면 은퇴 후에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0세에 은퇴한 직장인이 부인과 함께 매끼 5천원짜리 밥만 먹고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보자.

순전한 밥값만 2억원이 넘게 든다.

그러나 어디 밥만 먹고 살 수가 있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60세란 나이는 자녀 결혼도 시켜야 하고 건강을 위한 간병비용, 적절한 여가활동을 위해 큰 목돈 준비와 고정 지출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은가?

은퇴 후에 어디에서 살 것이며, 어떤 노후 생활을 꿈꾸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자금은 달라지겠지만 월 200만원이면 노후에 '보통' 수준의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부유한 생활을 하려면 월 380만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월 200만원의 노후 필요자

금을 장만하려면 35세부터 매월 82만원을 저축해야 한다. 내 집 마련과 자녀교육 비용 등을 감안하면 매월 82만원을 저축하기란 쉽지 않지만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저축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저축하는 게 연금 재테크의 정석이다.

물론 이 계산은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은 계산에 빠진 것이니까 대략 이 2가지를 50%정도로 본다면 앞에서 예를 든 35세의 경우 40만원정도는 연금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찾아오고 있지만 그 문제를 대비하는 사람은 2명 중 1명이 채 안 되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 만일 은퇴 후 우리의 부모님 세대처럼 자녀가 부양해 주겠지 또는 나라에서 책임져 주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정말 큰 착각이며 위험한 계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후 생활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에 맞는 저축 규모를 정한 후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한 연금재테크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일반적인 연금의 구조를 살펴보면 피라미드의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장 바닥에 있는 국민연금은 기초 생활 보장용이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퇴직연금(퇴직금)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며 최상층에 있으면서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다.

우리나라에도 2005년 12월에 관련법이 제정되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완전한 3층 구조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은 내는 보험료는 같아도 받을 연금은 줄어들게 되었고 최근에 도입된 주택연금은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노후 준비에 소홀하면 큰코다칠 수 있고, 퇴직연금이 시행되고 있는데 퇴직연금으로 전환시에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게 되었다.

결국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은

행, 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의 가입이 필수라고 하겠다.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 상품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는 생명보험사의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득공제형 연금저축은 납입기간 중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페널티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10년 이상 납입한 후 연금형식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중도해지로 간주돼 원리금의 22%에 달하는 무거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비해 생보사들이 취급하는 연금보험은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면 연금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며, 노후자금 마련 외에도 특약을 통해 위험 및 질병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은행을 통한 방카슈랑스 판매에서도 각광 받고 있다.

또한 최근 투자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는 변액연금 상품도 노후 준비 상품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재테크에도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지난 호에서 다뤘던 내용 중 미국 부자를 연구한 토머스 스탠리가 '이웃집 백만장자' 라는 책에서 소개한 부자지수(指數) 공식이 있었는데 $(\text{순자산액} \times 10) \div (\text{나이} \times \text{연간총소득})$ 이다. 지수가 1 이상이면 같은 또래보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미라고 했고 0.5 미만이면 재테크에 문제가 있다는 뜻, 2 이상이면 잘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단순히 자신의 상황을 체크 해보는 정도로 하되 지수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은퇴설계에 있어서도 3-3-3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수입의 30%를, 은퇴 전 30년 동안 모아, 은퇴 후 30년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 논리에 맞춰 보더라도 개인연금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적립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연금준비금이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개인연금에 가입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60세부터 똑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20대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이 100이라면, 하루 이틀 미루다 30대에 가입 시에는 부담이 150으로 늘어나고 50세가 되면 그 부담은 400을 넘게 된다.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인류의 꿈이고 희망이다. 단지 오래 사는 것만으로 친다면 이제 그 꿈은 많은 진전을 이뤘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37세에 불과하던 세계의 평균수명이 200년이 지난 지금 그보다 2배가 연장됐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40~50년 이내에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돈 없이 오래 살게 되면 그 자체가 치명적인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준비된 노후나 그렇지 못하나에 따라 꿈과 희망인 오래 사는 것이 치명적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노후가 길어 진 것은 분명한 축복이다. 그런데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위험하다. 현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오래 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 버텨야 할 노후는 한없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는 노후 대비라는 말은 의미가 없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자식들이 알아서 봉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퇴직금으로 그리 길지 않은 노후를 그럭저럭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직장인들은 결혼 후 집 장만, 자식교육에 허리가 휠 지경인데도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은퇴자들은 물론이고 은퇴를 앞둔 중장년은 노후대비라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한다. 심지어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20대들에게도 노후대비는 남의 일이 아니다.

그 준비는 노인이 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후 준비가 이제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은퇴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는 은퇴준비를 잘 하는 것만이 남았다. 이에 행복한 은퇴설계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7가지 정도로 요약해 소개한다.

첫째, 은퇴준비는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긴 안목으로 투자해야 한다. 일찍 준비할수록 비용부담은 줄어들고 노후는 풍족해진다. 장기라고 해서 반드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선입견은 버려야 한다. 연금, 부동산, 펀드 등 어느 것이나 노후라는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들이다.

둘째, 은퇴자산을 모으는 것 못 지 않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퇴 후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기는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그 많은 시간을 여행이나 여가활동만으로 보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몰두하며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이는 그것이 골프 일 수도 있고 봉사 일 수도 있으며 창조력을 발휘하는 예술일 수도 있다.

셋째, 최상의 재테크인 건강을 챙겨야 한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8세, 건강나이는 68세이다. 보통 사망하기 10년쯤 전부터 각종 육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삶의 질은 떨어지고 의료비용은 늘어난다는 말이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노후 준비가 되며 최상의 재테크인 셈이다.

99881234라는 신조어가 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3일째 죽자라는 희망이 담긴 말이다.

이처럼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 부부 관계에 투자하라. 노년기에 이르면 배우자의 역할은 점점 커진다. 활동기 다기다망 했던 인간관계는 은퇴 후 배우자라는 하나의 점으로 흡수돼 버린다. 배우자는 쓸쓸한 노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군이다.

다섯째, 자녀교육과 상생할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투자는 수익률 체감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다. 적당한 수준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노후준비 없는 교육비 투자는 자녀의 미래에 족쇄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섯째, 자금마련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물가상승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전세계 물가가 묶여있지만, 향후 30년 후에도 그러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년기에 물가

상승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오래 사는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현금을 지급하고 절대 해약할 수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생명보험사의 종신연금은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오는 2010년이면 제1세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다. 과연 그들은 어떤 노후생활을 맞이하게 될까? 결국 자신들의 은퇴 이후를 잘 준비한 이들이 은퇴 후에 풍요롭고 여유로운 진정한 골드에이지(Gold Age:황금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로 1925년 ‘인간과 초인(Man and Superman)’ 이라는 저서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조지 버나드 쇼는 94 세의 나이로 1950년에 사망했는데 그의 묘비에는 그가 생전에 적어 두었던 ‘우물쭈물하다가(어영부영 살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할 걸, 투자를 좀 더 할 걸...

이처럼 항상 지나고 난 뒤에 ‘걸, 걸,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다가올 자신의 미래를 위해 미리 미리 준비하여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는 반성과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행복한 부자로,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제자유인이 되도록 하자. ☺

